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0. 1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프랑스, 경찰內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 경도 직원 색출
 - 10.11 佛 언론은 지난 3일 경찰청 본부에서 발생한 직원의 흥기 난동사건 이후, 테러 집단의 영향을 받거나 급진 이슬람 사상을 신봉하는 경찰관과 내무부 소속 요원 19명을 색출(경찰관 2명은 충기를 압수)했다고 보도
- 프랑스, 노트르담 대성당 테러 기도 여성 2명에게 장기 징역형 선고
 - 10.14 AP통신은 프랑스 파리 중죄재판소가 ISIS 지령에 따라 테러를 기도한 「오르넬라 길리그만」(32)과 「이네스 마다니」(22)에게 각각 25년과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
 - * '16.9.4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옆 음식점 앞에서 가스통 6개를 실은 차량에 경유를 뿌린 후 폭파하려다 실패
- 英, 시리아內 자국 출신 ISIS 조직원 송환·처벌 검토
 - 10.15 英 정부는 터키의 쿠르드 침공 이후 ISIS 조직원들이 수용 시설을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ISIS의 재건 등 새로운 위협이 발생될 것을 우려, 자국 출신 조직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
- 英, 사상 처음 증오범죄 연간 10만건 이상 돌파
 - 10.16 더타임스는 지난 1년간 경찰에 신고된 인종·종교·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증오범죄 건수가 전년보다 10% 늘어난 103,300건으로 집계됐으며,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
 - * 인종 관련 > 성적 지향 > 종교 관련 > 장애 연관 > 성전환자 順

미 주

- 美 법무부, 대테러 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정보분석관 기소
 - 10.9 로이터통신은 美 법무부가 국방정보국(DIA) 소속 정보분석관 「헨리 카일 프레제」(30세)를 중국·러시아 무기체계 등 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체포해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보도
- 美,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공격한 터키에 경제제재 조치
 - 10.14 「폼페이오」 美 국무장관은 「트럼프」 대통령이 터키의 시리아 군사공격 중단과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 철강 관세, 무역협상 중단 등의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- 뉴질랜드, ‘온라인 극단주의 콘텐츠’ 전담수사팀 설치 추진
 - 10.14 AFP통신은 뉴질랜드가 온라인 극단주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내무부에 수사·포렌식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설치하여 폭력·극단적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·삭제·수사할 예정이라고 보도

중 동

- 시리아, 구금시설에서 ISIS 포로 탈주 등 테러위협 고조
 - 10.13 로이터통신은 터키-쿠르드족 간 전투가 확대 양상을 보이면서 쿠르드민병대가 구금해온 785명의 ISIS 포로들이 탈출했다면서, ISIS 세력 再확대 등 시리아內 테러위협 고조를 지적
 - * 쿠르드민병대는 ISIS 격퇴전에서 1만2천여명을 포로로 잡아 구금 관리

파키스탄, 경찰시설 겨냥 동시다발 테러

- '09.10.15 파키스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와 편자브주에서 연방수사국(FIA)·경찰학교 등 사법기관 시설을 겨냥한 동시 테러(5건)가 발생하여 40명 사망·다수 부상
 - 연방수사국(FIA) 편자브주 라호르市 지부청사를 시작으로 베디안 경찰특공대 훈련소, 마나완 경찰학교 등 3곳에서 무장괴한들의 총격 발생
 - 또한,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코하트市의 사다르 경찰서에서 자살폭탄테러, 페샤와르市 공무원 관사에서 차량폭탄테러 등도 동시 발생
- 일련의 테러는 파키스탄 탈레반(TTP)의 지도자 「바이툴라 메수드」가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데 대한 TTP의 보복성 공격으로 추정
- 사건 직후 파키스탄은 TTP 대상 대대적 공세를 펼쳤으나, 아프간 접경지역인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일대에서 후속 테러 지속발생
 - * '09.10.16 페샤와르 경찰수사국 폭탄테러(13명 사망), 10.23 캄라 공군기지 오토바이 자살폭탄테러(7명 사망), 10.29 페샤와르 재래시장 차량폭탄테러(105명 사망) 등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파키스탄 탈레반(TTP) >

- (결성) '07. 12 알카에다가 '파키스탄의 FATA(연합부족자치지역)內 군사작전 저항 및 무장투쟁 강화를 위해 13개 무장단체들을 연합·결성('11.7 UN 테러단체 지정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북서부 FATA 및 아프간 접경지역
- (조직규모) 조직원 약 25,000명(現 최고 지도자 「물라 파즈룰라」, '13.11 선출)
- (활동수법) 부족지역內 게릴라戰 및 페샤와르 등 주요도시 폭탄테러 등 자행
- (주요테러) ① '11.5 페샤와르 국경수비대에 자폭테러(230명 사상)
 ② '14.12 페샤와르 軍부설학교 공격(274명 사상)
 ③ '16.1 페샤와르 바차칸대학 총기난사 및 자폭테러(71명 사상)